

◎ 다가오는 1990년에는 지방 8곳에 대학이 신설되고 4개 각종 학교가 대학으로 승격, 모두 12개 대학이 '91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현재 1백 15개(11개 교대 포함)에서 '90학년도에는 1백 18개, '91학년도에 1백 30개로 늘어나며, 대학 정원도 신설 12개 대학(4천 10명)을 포함, '90학년도 19만 6천 1백 80명에서 '91학년도에는 2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91년에 승인된 12개 대학은 다음과 같다.

대 학	위 치	개 단	입학 정원
世明大	堤川	大元교육재단 (權寧馮)	10개 학과 400명
論山大	論山	建陽학원 (金煜株)	同
西南大	南原	洪福학원 (李洪河)	同
釜山가톨릭大	釜山	聖母학원 (李甲株)	1개 학과 40명
韓瑞大	瑞山	威基善	10개 학과 400명
大眞大	抱川	대순전리회 (朴漢慶)	同
伽倻窯業大	高靈	大邱학원 (李昌彦)	4개 학과 320명
직업훈련대	天原	노동부 (李憲瑞)	8개 학과 240명
皮漁善大	平澤	기독교초교과 (趙基興)	4개 학과 220명
咸和大	天安	통일교 (徐眞錫)	13개 학과 520명
大神大	安義	예수교장로회 (吳善煥)	10개 학과 520명
純福音神大	軍浦	순복음교회 (趙海基)	3개 학과 150명

◎ 문교부는 지난 10월 28일 '90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과 관련, 목포대, 부산수산대, 광주경상대, 삼지대, 순천향대를 종합대학교로 승격시킬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였다.

◎ 圓光大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 김삼룡)에서는 「제10회 마한 문화 연구의 제 문제」라는 학술 회의를 위해 지난 10월 10일 北韓 고고학자 2명을 통일원에 신청해 23일 접촉 승인을 받았으나, 북한쪽에서 참가를 거절하였다.

이번에 초청된 북한학자 주영현 부소장(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은 마한을 연구 발표할 예정이었으며, 체희국 교수(김일성 종합대

학 역사학과)는 한사군 시대에 있어서의 토착 사회의 성장을 고찰할 예정이었다.

북한 학자의 이와 같은 불참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정대로 거행되어 마한·백제 연구를 위해 중국,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의 고대 사학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문헌사학·고고학·인류학·민속학 역사가 한국사에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教授 인사 등정 ▲

- 牧園大  
기획실장 : 金鼎東  
학생처장 : 姜秉吉  
사회과학부장 : 朴義哲
- 釜山大  
사회대학장 : 신섭중 사범대학장 : 홍순형
- 釜山水産大  
교무처장 : 장동석  
학생처장 : 홍봉기  
학보사주간 : 최진호  
방송국주간 : 이재철  
해양과학연구소장 : 박정길  
학생생활연구소장 : 이승영  
기관 실습공장 공장장 : 김시영
- 서울大  
교무처장 : 權肅一  
기초과학 공동기지센터 소장 : 梁喆學
- 全州又石大  
교무처장 : 金勇 총무처장 : 殷載淳  
기획실장 겸 대학건설본부장 : 朴光文  
직업보도실장 : 金鍾煥
- 濟州大  
인문대학장 : 申幸澈 사범대학장 : 金秀宗
- 忠北大  
공대학장 : 김공수
- 曉星女大  
미대학장 : 金東鎭 미대교학부장 : 尹亨子